

## 2012년 7급 국가직 한국사 기출과 해설 (베리타스 고시학원 이만적 교수)

우선 한글로 편집했습니다. 만적한국사기출문제집의 형태로 다시 깔끔하게 편집하여  
9월 23일 저녁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 만적한국사기출문제집 샘플

[문제별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무료동영상 ([www.veritasm.co.kr](http://www.veritasm.co.kr)) 제공]

#### 42 고려 시대 다음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4 법원직 9급]

- 지방 향리의 중소 지주 출신이다.
- 유교적 소양이 높았다.

- ①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 ②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③ 이들은 주로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득세하였다.
- ④ 첨의부나 밀직사 등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특강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자신들의 기반을 침해하면서 농장을 확대하는 권문세족과 충돌하게 되자,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화하여 그들의 비리와 불법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관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었고, 과전과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왕권과 연결하여 각종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하였다.

만점 풀이

제시문은 신진 사대부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 지방의 향리 자체들로, 무신 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그중 일부가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여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공민왕 때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①, ③, ④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문 1. 다음 호소문을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잡고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하다면 이 육신을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조선사편수회에 참가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 ②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한민애국단을 창단하였다.
- ③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해 민족단일전선에 노력하였다.
- ④ 선임정·후신탁 이념을 담은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1948.2.10). ◆순서주의['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10)-유엔소총회(1948.2.26)-남북 협상(1948.4)], 김구는 연통제, 교통국의 붕괴,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등으로 임시정부가 침체되자 1931년 한민애국단을 창단하였다. ① 조선사편수회(1925)와 청구학회(1930)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제가 만든 단체이다. ③ 1930년대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항일민족연

합전선단체이다. 1937년 12월 난징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해 조선민족해방자동맹·조선혁명자연맹(일명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등의 4개 단체가 참가해 결성한 민족주의 좌파계의 항일민족연합전선이다. 참고로 이당시 우파 중심의 항일민족연합전선으로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년,난징)가 있었다. ④ 남북협상(1948.4)은 김구와 김규식이, 모스카바 3상회의의 내용인 선임시정부수립 후신탁통치협의를 지지한 좌우합작운동(1946~1947)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었다.

특강: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좌우합작운동                                                                                                         | 남북협상                                                                                                                                                                                                                          |
|----------------------------------------------------------------------------------------------------------------|-------------------------------------------------------------------------------------------------------------------------------------------------------------------------------------------------------------------------------|
|                                                                                                                |                                                                                                                                                                                                                               |
| <p>이승만의 정읍발언(남한단독선거주장)이 있자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냉전체제가 아니어서 미군정이 이 운동을 지지하였다(1947년 트루만독트린부터 본격적인 냉전체제이다)</p> | <p>우파는 이승만 중심으로, 좌파는 김일성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되자 김구는 좌우합작운동(좌우합작운동은 좌파,우파 모두 반대했으나 김구는 찬성)부터 극우에서 중도 우파로 바뀌게 된다. 중도우파로 바뀐 김구는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전개하였다.(그림 설명: 이승만과 김일성 중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김구의 모습을 과대표현 ^-^)</p> |

문 2.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중략) ... 마

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향산 선(禪)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도록 하자.

- ① 변발, 호복, 조혼 등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 ② 가묘를 세워서 제사하는 예제가 확산되었다.
- ③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④ 김사미·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이다. 무신집권기 지눌은 최씨정권의 지지를 받으며 선종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을 만들고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신집권기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김사미·효심의 난 등이 전개되었다. ① 원간섭기 ② 조선 중기 17세기 ③ 통일신라 하대

◆ 무신 집권기의 권력 변천(만적한국사요약집에서 발췌)

|        | 성 립 기                |               |                         | 확립기·안정기 (최씨 정권기)      |                                                             |     |     | 쇠 퇴 기    |     |       |
|--------|----------------------|---------------|-------------------------|-----------------------|-------------------------------------------------------------|-----|-----|----------|-----|-------|
| 시기     | 명종                   |               |                         | 신종, 희종, 강종            | 고종                                                          |     |     | 원종       |     |       |
| 집권자    | 정중부<br>(보현원 사 건)     | 경대승           | 이의민                     | 최충헌                   | 최 우                                                         | 최 항 | 최 의 | 김 준, 유 경 | 임 연 | 임 유 무 |
| 권력 기구  | 중방                   | 도방            | 중방                      | 교정도감(교정 별감), 도방       | 정방 (인사),서방:(문신숙위기구),<br>삼별초[ 좌, 우별초(야별초가 분화)+신의군], 마별초(의장대) |     |     |          |     |       |
|        |                      |               |                         |                       |                                                             |     |     |          |     |       |
|        |                      |               |                         | 대농장                   |                                                             |     |     |          |     |       |
| 반무 신란  | 김보당<br>조위충<br>귀법사의 난 |               |                         |                       |                                                             |     |     |          |     |       |
| 하층민 반란 | 망이, 망소이<br>(공주명학소)   | 죽 동<br>(전주관노) | 김사미, 효심<br>(운문)<br>(초전) | 만적(개경)<br><br>최광수(서경) | 이연년<br>(담양)                                                 |     |     |          |     |       |

문 3.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 막집 등에서 살았다.
- ②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 ③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서 덧무늬토기, 이른 민무늬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④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경이 더욱 발전하였다.

정답 ④ 청동은 귀하고 약해서 농기구를 만들 수 없다. 청동기 시대에는 간석기로 만든 홈자귀, 바퀴날 도끼,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② 신석기 시대에 가락바퀴와 뼈바늘(평남 온천 궁산리에서 출토)을 이용해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되었다. ③ 신석기 전기에는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압인문) 토기가 제작되었으며 신석기 중기에는 첨저빗살무늬토기가, 신석기 후기에는 평저빗살무늬토기, 물결무늬 토기(파상문 토기), 번개무늬 토기(뇌문 토기)가 제작되었다.



문 4.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락 9년(399)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남쪽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왕께 도움을 청합니다.”고 하였다.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도움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 ③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차지하였다.
- ④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정답

해설 ③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 전연,전진,후연 등은 5호 16국의 국가들이다. ①,④ 5세기 장수왕 ② 4세기 소수림왕[전진과 수교, 불교수용(순도), 태학설립, 율령반포]

문 5.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제의 정책은?

조선총독부는 옷감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입게 하였다. 이 옷은 일본의 농촌 여성들이 주로 입던 작업복으로, 긴 윗옷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허리와 허벅지까지 통이 넓고 바지 아랫단은 좁았다.

- ① 산미 증식을 위하여 보국대를 동원하였다.
- ② 헌병 경찰과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였다.
- ③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한글 신문을 발간하였다.

④ 호남선 철도를 개통하여 농산물 반출을 확대하였다.

정답:①

‘몸빼’: 1937년 노동력 동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어 보급되었다. /산미증식계획: 1921년부터 1925년까지(제1차 계획), 1926년부터 1935년까지(2차 계획, 조선미의 대일수출 증대로 일본 농업이 위기에 부딪치자 1934년 중단), 1940년(제3차 계획) 이렇게 3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보국대: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인력부족이 격화되자 징용제도·징병제도·근로보국대제도·근로동원제도 등을 만들어 인력을 강제로 수탈하였다. ② 1910년대 ③ 1920년대 조선일보,동아일보(1940년에 폐간) ④ 경인선 개통(1899), 경부선 개통(1905), 경의선 개통(1906), 호남선, 경원선 개통(1914년)

1937년 이후 유행한 몸빼와 각모(만적한국사에서 발췌)



문 6. 다음의 토지제도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閭)에는 여장(閭長)을 두며 여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내 땅 네 땅 구분이 없으며 오직 여장의 명령만 따르며, 개인별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기록하고, 수확물은 모두 여장의 집에서 모은다. 분배할 때는 공세(公稅)와 여장녹봉을 빼고서 일역부(日役簿) 기록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한다.

— 「전론(田論)」 —

- ① 균전제 시행에는 비판적이었다.
- ② 병농일치의 군사제도가 함께 제안되었다.
- ③ 정전제를 이상적 모델로 삼은 개혁론이었다.
- ④ 놀고 먹는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겼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전론’에서 주장한 ‘여전론’이다. 다산은 토지 사유에 입각한 균전제와 한전제는 놀고 먹는 양반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균전제와 한전제를 비판하며 여전제를 주장하였다.(①,④). 여전론란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이다. ② 다산은 여전제와 함께 국방제도

의 개선도 주장하였는데 여전제에 따라 군사조직 편성(여-리-방-읍에 따른 병농일치)을 주장하였다. 이후 다산은 여전제가 다소 공상적이고 이상적이란 개혁안이란 것을 인정하고 경세유표에서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정전제란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가난한 농민에게 분배하고 지주의 토지는 병작농민에게 골고루 소작시키는 일종의 토지 공유제이다. (③)



문 7. 다음 상소문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道)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 등 편민이국(便民利國)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器)에 해당합니다. 신이 변혁을 피하자고 주청드리는 대상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 ① 왜양 일체론을 계승하였다.
- ② 온건 개화파의 현실관을 반영하였다.
- ③ 인물성이론을 사상적 연원으로 삼았다.
- ④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임오군란 직후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윤선학이 제시한 개화상소문이다(1882). 이는 온건개화파가 주장하는 동도서기(중체서용, 화혼양재, 개량적 개화)의 사고와 동일하다. ① 최익현의 왜양일체론(개항반대 5불가소) :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한한 사치품과 땅에서 생산되는 유한한 곡물과의 교역은 경제적 파멸을 가져온다.’ ③ 인물성이론(호론,한원진, 권상하 중심)은 위정척사로, 인물성동론(낙론,이간, 김창협, 이재 중심)은 개화사상으로 계승되었다. ④ 1884년 갑신정변은 급진개화(변법적 개화)를 주장하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문 8. 다음 제도를 제정한 왕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을 정했다. 통합 때의 조신과 군사에게 관계(官階)를 논하지 않고 인성과 행실의 선악, 공로의 대소를 보고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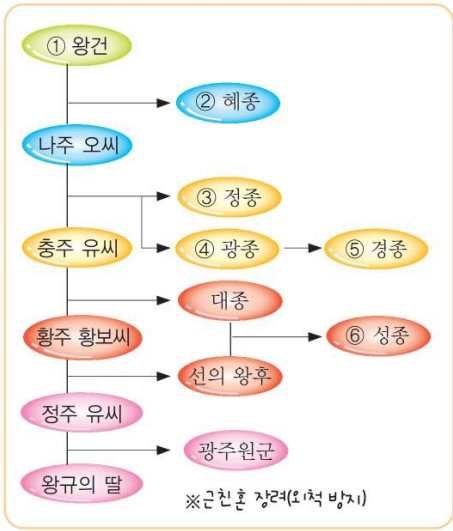
— 「고려사」 —

- ①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경략하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 ④ 정주 유씨, 충주 유씨 등 유력한 지방 호족들과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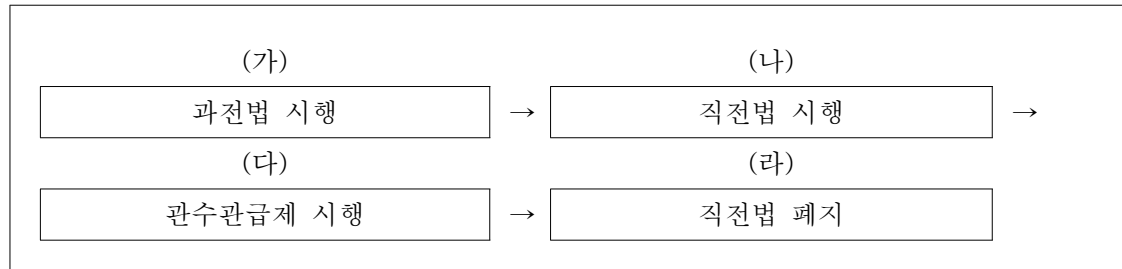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 특강 참고 ① 정종은 거란침입에 대비하여 호족연합부대인 광군(광군사가 통솔)을 조직하였다. ② 광종은 중국이 5대 10국시대였을 때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 사용<광덕(950), 준풍(960~963)>하였으며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칭하였다. 그러나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송과 국교를 수립하고 송나라의 연호인 '건덕'(乾德)을 사용하였다. ③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을 하여 서경을 중시하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에 이른 것은 서희의 담판외교로 강동 6주를 얻게 된 이후이다.

특강

| 왕건의 가계도(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왕건의 북진정책(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
|  |  |

문 9. 다음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를 계기로 관료의 유가족에게 구분전과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 ② (나)로 인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사라졌다.
- ③ (다)를 계기로 수조권자의 과도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였다.
- ④ (라)로 인해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정답 ③

해설 관수관급제로 국가가 관리의 수조권을 대행하여 공전과 사전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으며 전주전객제가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공전과 사전의 구별이 법제적으로 소멸하고 전주전객제가 법제적으로 소멸한 시기는 명종 대의 현물녹봉제(관수관급제는 직전법체제하에서 실시되었기에 직전법체제의 폐지는 현물녹봉제이다)이다.] ① 구분전(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과 한인전(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의 토지이다. 과전법에서 유가족에게 주었던 토지는 고려시대의 구분전을 계승한 수신전(과부)와 홀양전(고아)이다.구분전은 세습이 불가능했으나 수신전과 홀양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세조의 직전법 때 폐지) ②,④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주전객제는 명종 때 법제적으로 폐지되어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다. 이에 자영농이 수가 줄어들고 소작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지주전호제의 확산은 이미 세조의 직전법 때 시작되었으나 명종 때 더욱 더 확대된다.

특강: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변화(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변화 |                                                |                         |                                    |                          |
|-----------------|------------------------------------------------|-------------------------|------------------------------------|--------------------------|
| 구분              |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 녹봉제                      |
| 실시 시기           | 공양왕(1391)                                      | 세조(1466)                | 성종(1470)                           | 명종(1556)                 |
| 배경              | 권문세족의 불법적 토지 겸병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과전의 부족      |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으로 인해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취가 발생 | 직전법 체제 붕괴                |
| 목적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1/10 수조)    | 토지 부족의 보완 → 국가 재정 안정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 관리의 생활 기반 마련             |
| 원칙              | 현·전직 관리에게 경기도에 한정하여 수조권 지급, 고려의 전시과와 달리 전지만 지급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홀양전 폐지 | 국가에서 수조권 행사(지방 관청에서 관리들의 수조권 대행)   | 현물로 녹봉만 지급               |
| 영향              | 농민 경작권 보장                                      | 훈구파의 농장 확대              | 농장 확대 가속화                          | 전주 전객제 소멸, 지주 전호제(농장) 확산 |
|                 |                                                |                         |                                    |                          |

문 10. 다음 글을 집필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인가.

— ○○○○서문 —

- 무릇 역사는 국가의 정신이요, 영웅은 국가의 원기라. 국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사를 더욱 존중하고 영웅을 숭배하니 그 역사를 존중함과 영웅을 숭배함이 곧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상이라.

— 고구려 영락대왕 묘비 등분을 읽고 —

- ① 국가의 구성 요소를 국혼과 국백으로 나누었다.
- ② 역사 연구의 목표를 ‘조선 열’의 유지에 두었다.
- ③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였다.
- ④ 기자조선 — 마한 —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해설: 양명학자 박은식과 관련된 제시문이다. ② 양명학자 정인보이다. 정인보는 박은식과 같은 양명학자이지만 단재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묘청의 난을 ‘조선 1천년래의 제일대의 사건’으로 평가)」를 계승하여 5천년간 조선의 얼’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조선사연구」로 간행하였다. ③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여 고대사의 체계를 단군 ⇨ 부여 ⇨ 고구려로 연결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 확립하였고 헤겔의 변증법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3조선설을 주장[단군조선 붕괴후 신조선(해씨),불조선(기자),말조선(마한)]하였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을 계승한 책은 신민족주의(계급보다는 민족 주체의 성장과정이나 발전과정을 중시)를 주장한 안재홍의 「조선상고사감」이다.

|                                                                                                                                                                                                                                                                                                                                                                                                                                                                                                                                                                                                                                                                                                                                           |
|-------------------------------------------------------------------------------------------------------------------------------------------------------------------------------------------------------------------------------------------------------------------------------------------------------------------------------------------------------------------------------------------------------------------------------------------------------------------------------------------------------------------------------------------------------------------------------------------------------------------------------------------------------------------------------------------------------------------------------------------|
| <p>특강:박은식 (만적한국사요약집에서 발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보의 주필</li> <li>• 최남선과 함께 조선광문회(1910,신민회의 지원)를 조직하여 고전을 정리·간행</li> <li>• 「유교구신론(1909)」: 유학의 혁신으로 유학을 개화운동과 구국운동의 지주로 삼기로 함,대동교 창시</li> <li>• 기타: 「대동고대사론」, 「왕양명선생전」, 「몽배금 태조전(‘꿈에 금나라 태조를 보고 절했다’는 뜻)」, 「연개소문」, 「안중근전」등</li> <li>• 동제사(1912), 신한혁명당(1915) 등에서 독립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과로서 국민대표회(1923)의 개최요구 ⇨ 현상유지과로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역임</li> </ul> </li> <li>• 저서 「한국통사(19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부: 단군, 고구려, 발해등의 국난극복사, 2부: 흥선대원군-한일합방까지</li> <li>2. 서문-역사를 혼과 백으로 보면서 ‘역사는 신(神)이요, 나라는 형(形)이다’ 라고 주장 (민족혼 강조)</li> </ol> </li> <li>•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갑신정변-1920년 독립군활동(3·1운동 중심)</li> </ul> |
|-------------------------------------------------------------------------------------------------------------------------------------------------------------------------------------------------------------------------------------------------------------------------------------------------------------------------------------------------------------------------------------------------------------------------------------------------------------------------------------------------------------------------------------------------------------------------------------------------------------------------------------------------------------------------------------------------------------------------------------------|

문 11. 신라 민정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② 5년마다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③ 호는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 ④ 토지와 인구뿐만 아니라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정답 ②

해설: 통일신라는 생산량을 매년 조사하여 매년 징수하였으나 민정문서(서원경지방의 4개 촌락에 관한 내용,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는 3년마다 촌주에 의해 작성되었다. ① 민정문서는 호구를 노동력의 다과에 따라 9등급(상상-하하)으로, 인구를 연령별, 남녀별로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④ 통일신라까진 아직 양안(노지대장),호적(인구와 가호),공안(특산물)의 구분이 없어 민정문서에 모두 기록되었다. 양안,호적,공안의 구분은 고려시대부터이다.

특강 민정문서

인구구분

| 구분 | 1~9세 | 10~12세 | 13~15세 | 16~57세 | 58~60세 | 61세 이상 |
|----|------|--------|--------|--------|--------|--------|
| 남자 | 소자   | 추자     | 조자     | 정      | 제공     | 노공     |
| 여자 | 소여자  | 추여자    | 조여자    | 정녀     | 제모     | 노모     |

토지의 종류

- ① 연수유답(정전): 농민들의 호별로 경작하는 토지
- ② 관모답: 관아 경비 충당 목적
- ③ 내시령답: 내시령이라는 관료에게 할당된 관료전
- ④ 촌주위답: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
- ⑤ 마전(麻田): 촌락의 공유지

문 12. 다음 ‘민요’가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석수장이 거동보소. 방 망치를 갈라 잡고 눈만 꿈벅거린다.  
도편수란 놈 거동보소. 먹통 들고 갈팡질팡한다.  
우리 나라 좋은 나무, 이 궁궐 짓는 데 다 들어간다.

- 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을 격파하였다.
- ②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 ③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 ④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흥선대원군(1863-1873 집권)시기 경복궁 중건 당시 불렀던 타령이다. 흥선대원시기 병인양요[1866, 한성근(문수산성), 양현수 (정족산성), 척화비문작성]와 신미양요[1871, 어재연(광성보, 갑곶), 척화비(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건립]가 있었다.② 상평통보는 인조 대 제작되어 효종 대 널리 유통되었다. 이후 숙종 대 이양법과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장시가 1000개 이상 증가되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참고: 경국대전에는 포화가 법정화폐, 숙종 대는 상평통보가 법정화폐로 채택 ③ 태조 이성계 ④ 동학농민운동(1894) 당시 전주화약이 맺어지자 일본군은 텐진조약으로 인해 철수를 해야할 위기에 처하자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참고: 텐진조약- 갑신정변 직후 체결,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게 미리 통보 (일본은 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 획득)]

문 13.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 세력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 문헌공도, 홍문공도 등의 사학이 설립되었다.

- ① 중류층인 남반은 중앙 관청의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관장하였다.
- ② 향리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가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 ③ 관청의 잡역에 종사한 공역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되었다.
- ④ 향, 부곡의 주민은 군현의 주민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정답 ①

해설 성종 대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지방의 향학에 파견하였으며 문종 대 최충의 문헌공도

(9재학당)등 사학 12도가 발달하였다. ① 남반은 고려시대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종·호종·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儀仗)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이다. 남반은 조선시대에는 남행으로 전락되어 문음자제들의 진출로로 전락하였다. 중앙 관청의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관장하던 계층은 경아전인 서리(말단 서리를 잡류라 함)라고 한다. ② 향리 중 상층 향리 즉 호장,부호장 출신의 자제들은 문과응시가 가능하였다. ③ 공노비는 모두 정로제(丁老制)에 의해 60세 이상이 되면 역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사노비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④ 특강참고

특강 고려시대 신량역천인(만적한국사요약집에서 발췌)

|       |        |                                                                                                                                                                                                                                               |
|-------|--------|-----------------------------------------------------------------------------------------------------------------------------------------------------------------------------------------------------------------------------------------------|
| 신량역천인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적으로 양인이나 사회적으로는 천민 대우</li> <li>• 일반 양인에 비해 조세나 거주에 있어서 많은 차별</li> <li>•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나 중대 범죄를 발생한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어 마을 전체가 강등 ex)공주 명학소 → 충순현 → 명학소</li> <li>• 향리(토성리민)의 지배, 거주이전의 자유 x</li> </ul> |
|       | 향·부곡·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부곡(농업):통일신라→소(수공업, 광업):고려<br/>(신라의 향은 향령 파견, 고려는 향은 관리를 파견하지 않음)</li> <li>• 변천:무신정변 때 일부 폐지(공주 명학소의 난)<br/>→조선 초 완전 소멸</li> </ul>                                                                  |
|       | 간척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처, 진, 관, 역등에 사는 주민들로서 농사(왕실과 사원이 수조했던 일종의 장원인 장과 처), 뱃사공(진), 숙박업(관)에 종사한 자들과 어간(어부), 염간(제염업), 목자간(목축업), 철간(광부), 봉화간(봉화담당) 등이 간척지도에 해당</li> </ul>                                                  |

문 14. 밑줄 친 ‘난’의 주체들이 주장했을 구호로 거리가 먼 것은?

최근 남쪽에서 일어나는 난은 양민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궁민(窮民)이 일으킨다. 이들은 생활할 만한 자산이 없으므로 밤낮 원망하고 난을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비록 의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타일러도 따르지 않는다. 요사이 남쪽 농민들의 소란은 대개 이들이 주동한 것이며 양민은 단지 협조자일 뿐이다.

— 「고환당수초」 —

- ① 잡역세 부과를 반대한다.
- ② 토지는 농민에게 넘겨라.
- ③ 과중한 결세를 해결하라.
- ④ 군포 부담을 고르게 하라.

정답 ②

해설 「고환당수초」은 진주민란(1862)을 목격한 강위(姜緯: 1820~84)의 시문집이다. 임술민란 때는 토지분배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조선왕조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토지분배 주장은 동학농민운동, 활빈당, 1930년대 소작쟁의 등이 있다.

문 15. 다음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      |
|-------|-------|------|------|
| ←박혁거세 | 진덕여왕→ | ←선덕왕 | 경순왕→ |
| (가)   | (나)   | (다)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ㄱ. (가) -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다.</p> <p>ㄴ. (나) -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세웠다.</p> <p>ㄷ. (나) - 감은사지 3층 석탑을 축조하였다.</p> <p>ㄹ. (다) -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였다.</p>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善德女王, 상대) 때 자장(계율종 창립)의 건의로 만들어졌으나 몽골 3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 ㄴ. 선덕여왕(상대) 때 첨성대, 분황사모전석탑 등이 만들어졌다. ㄷ. 신문왕(중대) ㄹ. 성덕대왕 신종(봉덕사종, 에밀레종)은 신라 경덕왕(◆참고: 757년 중대 말기 경덕왕 때 녹읍부활)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조를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자 아들인 혜공왕이 뜻을 받들어 771년(혜공왕 7)에 완성했다. ◆참고: 무열왕부터 혜공왕까지가 중대이며 선덕왕(宣德王)부터 하대가 시작된다.

특강 김부식과 일연의 시대구분(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① 신라 발전의 시기 구분 |                             |                           |                                            |                                   |                          |                        |                      |                      |
|----------------|-----------------------------|---------------------------|--------------------------------------------|-----------------------------------|--------------------------|------------------------|----------------------|----------------------|
| 왕호             | 거서간<br><small>군장 국가</small> | 차차웅<br><small>제사장</small> | 이사금<br><small>연맹 국가(박·석·김의 3부족 연맹)</small> | 마립간<br><small>고대 중앙 집권 국가</small> | 왕                        |                        |                      |                      |
|                |                             |                           |                                            |                                   | 왕호 도입                    | 불교식 왕명                 | 유교식 왕명               |                      |
| 시기             | 박혁거세                        | 남해                        | 유리~ 흘해                                     | 대물~ 소지                            | 지증왕                      | 법흥왕~<br>진덕 여왕          | 태종 무열왕<br>~혜공왕       | 선덕왕~<br>경순왕          |
| 의미 및<br>특징     | 신성한<br>제사장,<br>군장, 대인       | 샤먼적<br>성격                 | 연장자,<br>후계자<br>(연맹 왕국)                     | 우두머리,<br>대수장<br>(왕권 강화)           | 중국식<br>왕명과 국호<br>(신라) 사용 | 불교 사상을<br>이용한<br>왕권 강화 | 무열왕계<br>진골의<br>왕위 세습 | 내물왕계<br>진골의<br>왕위 세습 |
| <삼국사기>         | 상대                          |                           |                                            |                                   |                          |                        | 중대                   | 하대                   |
| <삼국유사>         | 상고                          |                           |                                            |                                   |                          | 중고                     | 하고                   |                      |

문 16. 다음 (가), (나)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위대 참령 ○○○이 … (중략) …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차마 내 병정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라고 말하고 차고 있던 군도를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병정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 용병(用兵)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다. 각 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뚝이 무너질 듯 근기(近畿) 지방으로 밀려들어가면 온 천하를 우리 보물로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 ① (가) - 의병과 연계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② (나) - 13도 창의대진소가 설치되고 이인영을 창의대장으로 뽑았다.  
 ③ (가) -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강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나) - 허위가 이끄는 선발 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는 고종강제퇴위(원인:헤이그특사파견)와 군대해산[정미7조약(한일신협약, 제3차한일협약)의 내용: 차관정치,신문지법,보안법,군대해산]으로 인한 정미의병(1907년), (나)는 1908년 서울진공작전에 관한 내용이다. 헤이그특사사건(1907년),고종강제퇴위(1907년), 정미7조약(1907년)이후 정미의병이 나왔다. ②,④ 서울진공작전 당시 만들어진 13도 창의군(cf:13도 의군은 1910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은 총대장이 이인영,부대장이 허위였다. 신돌석,홍범도 등 평민출신 의병장은 제외되었다.

특강:

[illegible]

문 17. 다음과 같은 민족 운동을 촉발한 일제의 침략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채 1,300만원은 나라의 존망과 관계한다. 갚으면 나라가 살고 갚지 못하면 망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이다. 현재 국고로는 이 국채를 갚기 어려운 즉, 삼천리 강토가 자칫 우리 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니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① 화폐 정리 사업과 시정 개선 사업을 강요하였다.
- ② 청국과 간도협약을 맺어 대륙 철도를 부설하였다.
- ③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경찰고문을 파견하였다.
- ④ 회사령을 공포하고, 일본 물품의 수입 관세를 유지하였다.

정답 ①

해설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1905년)결과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 이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1907년,대구, 서상돈과 양기탁 중심,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이 전개되었다. ② 1909년 안동봉천부설권과 푸순탄광채굴권을 얻기 위해 일제는 간도를 청에 넘겼다. ③ 제1차 한일협약(1904년)결과 스티븐스(외교고문)과 메가타(재정고문)등 여러 고문들이 파견되었다. ④ 1910년대, 1920년에 회사령 철폐(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923년에 관세가 철폐되었다.

특강: 화폐정리사업의 결과(만적한국사에서 발췌)

#### ■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문 18. 다음 (가), (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나)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 명의를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가) - 토지세 과세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나) - 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였다.
- ③ (가) - 국유지는 동양척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 ④ (나) - 귀속 농지 분배를 위하여 신한공사를 설치하였다.

정답 ④

해설 (가)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나)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이다(1949년 제정, 1950년 실시). 신한공사는 미군정기(1945-1948) 일제의 적산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①, ③ 토지조사사업으로 과세지가 확대되어 지세가 증가하였으며 토지의 매입, 매도가 쉬워졌다. 이런 점은 토지조사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짧은 신고기간과 까다로운 절차(신고주체가 개인만 해당되어 국유지와 문중소유의 토지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불하되었다.)로 토지의 40%가 약탈되었고 소작인의 토지권(영구소작권)과 입회권(주인이 없는 토지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박탈되어 식민지 지주제가 확산되었다는 점은 토지조사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② 북한의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매수 형태)은 5정보까지 토지소유가 가능했고 농지와 임야가 모두 토지개혁의 대상이었으나 남한의 토지개혁(유상매수, 유상매입 형태)는 3정보까지 토지소유가 가능했으며 임야는 제외되고 농지만 토지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문 19.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 신라는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조세로 수취하였다.
- ② 고려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 ③ 조선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을 시행하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12두의 전세를 부담시켰다.

정답 ④

해설 세종 대 연분 9등법은 풍년, 흉년을 고려하여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거두었으나 인조 대 영정법은 풍년, 흉년을 고려하지 않고 최하 1결당 4두를 거두었다. 토지 1결당 미곡 12두는 대동법을 말한다. ① 통일신라시대에는 생산량의 1/10을 거두었으나 후삼국시대에 1/1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태조 왕건은 취민유도정책으로 다시 1/10으로 줄였다. ② 고려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 즉 휴한의 빈도에 따라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고려시대에 녹비와 퇴비로 휴경지가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초기에 밭거름과 덧거름으로 휴경지가 소멸되었다. ◆참고: 고려(3등급) ⇨ 전분 6등법(세종, 이적동세, 수등이척법) ⇨ 양척동

일법(효종,동적이세) / 답험손실법⇒ 연분 9등법⇒ 영정법(인조)

문 20.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 ㄴ.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ㄷ.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 등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 ㄹ.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정답 ④

해설 ㄴ[통일신라 하대 889년(진성여왕 3) 신라의 사별주(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ㄱ[고려시대 1193년(명종 23) 이의민 집권기 경상도지역에서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부흥을 주장하며 일으킨 농민항쟁.]→ㄹ(16세기 명종 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부정부패로 일어난 임꺽정의 난)→ㄷ[1811년(순조 11) 세도정치의 삼정의 문란과 서북민 차별로 인해 홍경래·우군칙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대규모 농민반란. 홍경래는 평서대원수로 칭한 후 평안도 가산 다북동에서 봉기하여 청천강 이북지역을 장악하였으나 결국 실패]